

Vol.

74

2022년 11월

해양환경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
- 발행인 김종덕 원장
- 발행처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COP 27, 전 세계적 화석연료 위기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속도내야

IMO, COP 27에서 국제해운은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이며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산업임을 강조

-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는 그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한 조치의 격차를 해결하고 실제 기후행동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릴 것 ^{a),b)}
-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가뭄, 해수면 상승 및 극심한 폭풍 등의 기후위기 영향을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함
-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비용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적응능력을 구축하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가 적응할 수 있어야 함
- * 당사국총회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마련된 협약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회의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

〈표 1〉 개발도상국의 연간 기후위기 적응 비용 - AGR 및 IPCC WGII AR6 비교

연도 기준	2030년	2050년
AGR	\$160 백만/년 ~ \$340 백만/년	\$315 백만/년 ~ \$565 백만/년
IPCC WGII AR6	\$15 백만/년 ~ \$411 백만/년 (중앙값 \$127 백만/년)	\$47 백만/년 ~ \$1,088 백만/년 (중앙값 \$295 백만/년)

자료: UNEP, Adaptation Gap Report 2022

- ▶ IMO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세계은행과 함께 COP 27 부대행사 에서 재생가능한 연료 생산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기회 모색을 논의함 ^{c)}
- IMO 임기택 사무총장은 11월 10일 해당 행사에서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는 오늘날의 화석연료 사용에서 무탄소 대안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IMO의 해양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을 통해 경험, 투자, 금융 전문지식, 자원 등의 광범위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강조함
- 아프리카 나미비아, 칠레, 브라질 대표 참석자들은 해운과 같이 감축하기 어려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우선 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에탄올과 같은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었음을 언급함
- 세계은행은 모로코, 콜롬비아 및 브라질의 녹색 암모니아 및 녹색 메탄올, 나미비아의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UNCTAD 레베카 그린스팬 사무총장은 에너지 정책과 정치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으며, 미래는 비화석 연료

(태양열, 풍력, 수력 및 바이오매스 등)를 가진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강조함

■ 유럽과 미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개도국과 ‘협력 활로’ 개척하고 있어

- ▶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수소 및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d)}
 - EU 집행장은 COP 27에서 나미비아 대통령과 재생수소 및 원자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을 밝히면서, 재생수소 및 원자재 공급망 개발과 나미비아 산업 현대화를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 EU는 이미 카자흐스탄과도 원자재 공급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소 및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집트와도 청정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임
 - 더불어 남반구 국가들의 풍부한 자원을 재생에너지 촉진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밝히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국의 봉쇄정책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인한 화석연료 부족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위기에 빠른 대응속도를 촉구함
- ▶ 미국은 국내외 기후위기 해결의 일환으로 무배출 운송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COP 27에서 녹색 운송항로를 위한 도전과제를 발표함^{e),f)}
 - 한국과 미국은 COP 27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발표하였으며, 각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항만들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더불어 미국은 캐나다, 영국과도 녹색해운회랑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민간 이해관계자 협의와 연구 개발사업 프로젝트 등 추진하는데 협력하고 있음

■ COP 27을 시작으로 녹색해운회랑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되어야

- ▶ 이제는 규제 유무보다는 녹색해운을 위한 저탄소→무탄소→무배출의 수순을 밟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 필요
 - 국내 일부 산업계는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규제마저도 기한 막바지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규제 준수 차원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과 무배출 항로 확산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어 안팎의 격차가 다소 심각한 수준임
 - 산업계는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사부문의 기후위기 적응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함

- 녹색해운회랑 구축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과 벙커링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UN 및 IMO의 국제회의에서 국제해운 탈탄소화에 대한 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홍보하여 녹색해운회랑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김보람 전문연구원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 자료

- a)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what-expect-years-un-climate-conference-cop27> (검색일: 2022.11.15.)
- b) UNEP, *Adaptation Gap Report 2022*. 2022
- c) <https://safety4sea.com/imo-shipping-decarbonization-requires-rapid-shift-from-fossil-fuels-to-zero-carbon-alternatives/> (검색일: 2022.11.15.)
- d)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8168000098?input=1195m> (검색일: 2022.11.15.)
- e) <https://www.ishipnet.com/shipping-news/21300-u-s-announcements-under-the-green-shipping-challenge-at-cop27> (검색일: 2022.11.15.)
- f) <https://kr.usembassy.gov/110722-u-s-republic-of-korea-joint-statement-announcing-collaboration-on-green-shipping-corridors/> (검색일: 2022.11.15.)